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미련
동명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in Nursing Students

Mi-Ryon Le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및 동아리 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두 개의 광역시와 한 개의 시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대학생 3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였으며, 29.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leadership life skills of self esteem and club activities by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331 nursing students in 3 citi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0.0 program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revealed that; 1) Pearson's correlation revealed a significant association among leadership life skills and self esteem; 2)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leadership life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regression model explained 29.6% of leadership life skills. These findings can be utilized to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increasing leadership life skills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Leadership life skills, Self esteem, Club activiti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4 Tongmyong University Research Fund(2014A025).

Received 20 November 2015, Revised 23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Mi-Ryon Lee

(Department of Nursing, Tongmyong University)

Email: mrlee1365@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에게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인생을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며 대학생의 발달과업과제인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1].

특히 졸업이후의 사회생활에서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2, 3].

간호대학생의 경우 숙련된 간호를 제공하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 습득은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4]. 즉 다양한 간호실무 환경에서 전문화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는 물론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인간관계, 조직관리 등의 리더십 기술이 필요하다.

리더십 능력의 개발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며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조직 속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조직관리 기술 및 조직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5]. 리더십기술은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성인기로 이행하는 핵심요인이다[5, 6].

리더십생활기술은 실제 생활속에서 리더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되어지는 생활기술을 의미하며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보다 실천적인 영역이다[5]. Lee[7]는 대학생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의 모든 하위영역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리더십생활기술과 동아리활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8], 참여한 동아리 수가 많고, 동아리 가입 기간이 길고, 임원 경험에 있으며, 동아리 참여에 적극적이고 동아리 활동에 만족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 동아리에 참여한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9, 10]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은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단체활동경험은 리더십생활기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12].

지금까지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3,7,13], 자기효능감[9,10,13], 동아리활동[5,8] 및 단체활동경험[10,11,12] 등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리더십생활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 관련 요인을 알아 본 연구는 소수[3,9]에 불과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간호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 능력’을 간호사 핵심역량 7가지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 간호사 핵심역량에 따른 프로그램 학습성과에 리더십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리더십생활기술은 간호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 관련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동아리활동정도를 알아보고 이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리더십생활기술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및 동아리활동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및 동아리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리더십생활기술, 동아리활동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 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15년부터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P광역시, D광역시 및 K도에 소재한 대학교 간호학과 3곳을 임의 표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350명을 임의 표본추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331명(94.6%)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5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의 수를 14개로 설정하여 적정 표본크기를 산출하였을 때, 194명의 대상자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은 실제 생활 속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기술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관리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 등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리더십생활기술 척도는 Dormody와 Seevers[14], Morris[15], Seevers와 Dormody[16], Seevers, Dormody와 Clason[17], Wingenbach[18] 등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기술 2문항, 의사결정기술 5문항, 인간관계기술 7문항, 학습능력기술 4문항, 조직관리기술 3문항, 자기이해기술 6문항, 그룹활동기술 3문항 등 총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0문항을 Choi[5]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hoi[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84

으로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있다고 자신을 믿는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가 개발한 10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Jo[20]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Lee[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아리활동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동아리활동정도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는 t -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또한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아리활동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전공만족도, 학업성적 및 리더십교육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31명이었으며 연령은 19세 이하가 54.7%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이 87.6%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60.7%, 기독교가 16.3%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졸이상 47.4%,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62.8%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1.4%, 보통이 46.2%였으며, 학과성적은 보통이 62.5%로 가장 많았고 리더십교육 경험은 없는 경우가 55.6%를 차지하였다.

동아리활동은 동아리등록여부, 동아리활동참여횟수, 동아리활동기간, 동아리활동참여정도 및 동아리활동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동아리 회원으로 등록을 한 경우가 42%,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58%였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는 5회이하가 13.9%, 6~10회가 13.3%, 10회 이상이 14.8%였다. 동아리 가입이후 동아리 활동을 한 기간은 7~12개월이 21.5%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리 활동 참여정도는 소극적 참여가 17.8%, 보통과 적극적 참여가 각각 12.1%였으며,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보통이 18.4%, 만족 17.2%, 불만족이 6.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31)

General characteristics		N	%
Age (year)	≤19	181	54.7
	20	73	22.1
	21	71	9.4
	≥22	46	13.9
Sex	Male	41	12.4
	Female	290	87.6
Religion	Protestant	54	16.3
	Catholic	28	8.5
	Buddhism	48	14.5
Education level (father)	None	201	60.7
	Elementary school	6	1.8
	Middle school	14	4.2
Education level (mother)	High school	154	46.5
	≥College	157	47.4
	Elementary school	3	0.9
	Middle school	17	5.1
Major satisfaction	High school	208	62.8
	≥College	103	31.1
	Satisfactory	170	51.4
Academic achievement	Moderate	153	46.2
	Unsatisfactory	8	2.4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	Upper	41	12.4
	Middle	207	62.5
Club registration	Low	83	25.1
	Yes	147	44.4
	No	184	55.6
Club activities		N	(%)
Club participation frequency	Yes	0 139	42.0
	No	192	58.0
Club activities duration (month)	No	192	58.0
	≤5	46	13.9
	6-10	44	13.3
	>10	49	14.8
Club participation degree	No	192	58.0
	≤6	26	7.9
	7-12	71	21.5
Club activities satisfaction	13-24	38	11.5
	≥25	4	1.2
	No	192	58.0
	Passive	59	17.8
Club participation degree	Moderate	40	12.1
	Active	40	12.1
	No	192	58.0
Club activities satisfaction	Unsatisfactory	21	6.3
	Moderate	61	18.4
	Satisfactory	57	17.2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 정도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된 항목은 커뮤니케이션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관리기술, 자기이해기술 및 그룹활동기술 7가지 하위영역으로 측정하였고, 5점 만점에 리더십생활기술 전체 평균은 3.63점이었다. 하위영역에서는 인간관계기술, 그룹활동기술, 커뮤니케이션기술 순으로 높았고, 조직관리기술, 학습능력기술 순으로 낮았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Leadership Life Skills and Self Esteem (N=331)

Variables	M±SD	Range
Leadership life skills(total)	3.63±0.36	1~5
Communication skills	3.71±0.59	
Decision-making skills	3.65±0.46	
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3.75±0.44	
Learning skills	3.43±0.48	
Management skills	3.39±0.50	
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3.64±0.46	
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72±0.46	
Self esteem	3.59±0.51	1~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아리활동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전공만족도($F=13.04, P<.00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전공만족도에 있어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동아리활동에서 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아리활동참여횟수($F=5.31, P=.001$), 동아리활동참여정도($F=3.36, P=.019$),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F=3.87, P=.01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동아리활동참여횟수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6~10회 참여한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고, 6~10회 참여한 경우보다 10회이상 참여한 경우가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동아리활동참여정도에 있어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소극적으로 참여한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Table 3>.

〈Table 3〉 Leadership Life Skills and Club Activiti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31)

General characteristics		Leadership life skills	
		M±SD	t / F (p)
Age (year)	≤19	3.49±0.40	1.53 (.207)
	20	3.46±0.33	
	21	3.60±0.29	
	≥22	3.57±0.39	
Sex	Male	3.60±0.45	1.73 (.084)
	Female	3.49±0.36	
Religion	Protestant	3.48±0.40	0.14 (.934)
	Catholic	3.53±0.43	
	Buddhism	3.50±0.33	
	None	3.51±0.37	
Education level (father)	Elementary school	3.33±0.34	0.84 (.472)
	Middle school	3.44±0.35	
	High school	3.49±0.36	
	≥College	3.53±0.39	
Education level (mother)	Elementary school	3.09±0.30	1.54 (.205)
	Middle school	3.52±0.27	
	High school	3.50±0.35	
	≥College	3.54±0.4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ory ^a	3.60±0.40	13.04(<.001)
	Unsatisfactory ^c	3.35±0.55	
Academic achievement	Upper	3.52±0.32	0.21 (.814)
	Middle	3.51±0.39	
	Low	3.48±0.37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3.55±0.37	1.96 (.051)
	No	3.47±0.38	

Club activities		Leadership life skills	
		M±SD	t / F (p)
Club registration	Yes	3.47±0.37	-1.46 (.952)
	No	3.53±0.38	
Club participation frequency†	No ^a	3.53±0.38	5.31 (.001)
	≤5 ^b	3.43±0.28	
	6-10 ^c	3.34±0.38	
	>10 ^d	3.62±0.37	
Club activities duration (month)	No	3.53±0.38	1.34 (.254)
	≤6	3.38±0.32	
	7-12	3.47±0.34	
	13-24	3.54±0.42	
Club participation degree†	≥25	3.36±0.66	3.36 (.019)
	No ^a	3.53±0.38	
	Passive ^b	3.38±0.33	
	Moderate ^c	3.48±0.42	
Club activities satisfaction†	Active ^d	3.59±0.34	3.87 (.010)
	No ^a	3.53±0.38	
	Unsatisfactory ^b	3.39±0.35	
	Moderate ^c	3.39±0.37	
	Satisfactory ^d	3.59±0.35	

* p<.05, ** p<.01, *** p<.001
 † Scheffe' test, a,b,c,d:categories of variable

3.4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리더십생활기술 전체($r=.534, p<.001$), 커뮤니케이션기술($r=.342, p<.001$), 의사결정기술($r=.359, p<.001$), 인간관계기술($r=.374, p<.001$), 학습능력기술($r=.393, p<.001$), 조직관리기술($r=.374, p<.001$), 자기이해기술($r=.438, p<.001$), 그룹활동기술($r=.395,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 Esteem and Leadership Life Skills (N=331)

Variables	SE	LLS	LLS1	LLS2	LLS3	LLS4	LLS5	LLS6	LLS7
SE	1								
LLS	.534***	1							
LLS1	.342***	.500***	1						
LLS2	.359***	.710***	.434***	1					
LLS3	.374***	.762***	.377***	.381***	1				
LLS4	.393***	.743***	.261***	.610***	.455***	1			
LLS5	.374***	.626***	.299***	.238***	.461***	.444***	1		
LLS6	.438***	.793***	.363***	.431***	.424***	.485***	.396***	1	
LLS7	.395***	.720***	.387***	.456***	.564***	.512***	.461***	.458***	1

***p<0.001
 SE:Self esteem, LLS:Leadership life skills(ttotal)
 LLS1:Communication skills LLS2:Decision-making skills
 LLS3:Skills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LLS4:Learning skills LLS5:Management skills
 LLS6:Skills in understanding yourself
 LLS7:Skills in working with groups

3.5 대상자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변수인, 전공만족도, 동아리참여횟수, 동아리참여정도, 동아리만족도, 자아존중감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진단은 다중공선성, 잔차를 진단한 결과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공차한계는 0.898로 0.1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113으로 문제가 없었다.

리더십생활기술의 예측변인은 자아존중감($\beta =.500$), 전공만족도($\beta =-.107$)였으며($F=68.858, p<.001$), 이들 변인은 리더십생활기술의 29.6%를 설명하였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Leadership Life Skills (N=331)

Variables	β	t	p
Major satisfaction	-.107	-2.182	.030*
Self esteem	.500	10.231	.000***

 $R^2=.296, F=68.858, P<.001$
* $p<.05$,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동아리활동, 자아존중감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증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51.4%, 보통이 46.2%, 불만족이 2.4%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 선택시 취업전망을 중요시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높으며[21], 다른 전공에 비해 입학과 함께 취업이 어느정도 보장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리활동을 살펴보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58%를 차지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참여횟수는 10회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아리 가입후 활동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소극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며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과정의 어려움은 물론, 임상실습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동아리 가입의 필요성을 적게 느껴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동아리 가입을 하더라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필요시에만 참여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동아리활동을 오래 지속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 전체는 평균이 3.63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 인간관계기술영역이 가장 높았고 조직관리기술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Yune과 Kim[2], Lee[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시절에 임상실습을 통해 다른 전공학생들에 비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

아 인간관계기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반면, 간호대학생의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거나, 변화에 대한 수용성 및 조직구성원을 신뢰하는 등의 조직관리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하여 조직관리기술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59점으로 Chung[22]의 3.08점, Lee[3]의 3.5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특성별 리더십생활기술의 차이에 있어서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전공에 대해 그저그렇다고 답변한 학생에 비해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교우관계와 집단활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학업이나 의사결정 등에 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리더십생활기술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동아리활동에서 리더십생활기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동아리활동 참여횟수, 동아리활동 참여정도,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 참여횟수가 6~10회 참여한 경우보다 10회 이상 참여한 경우에서 리더십생활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활동 참여정도에 있어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으며 동아리활동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으로 생각하는 학생보다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았다. 동아리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보다 리더십생활기술 점수가 낮았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hoi[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리활동 횟수가 적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동아리활동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아 수동적인 동아리활동에 그치고 있어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 전체, 리더십생활기술의 7개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Yune과 Kim[2], Lee[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Jung과 Kim[24]은 리더십은 자기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심리 내적세계에 대한 자기평가라는 점에서 리더십과 상호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리더십활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여 줄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본 Lee[3]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성격만족도, 학교만족도 및 리더교육경험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통해 리더십생활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졸업후 간호사로서의 임상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간호학 이론지식을 간호실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생활기술이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현실적으로 전공이수 체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간호대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25].

본 연구결과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은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리더십생활기술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에게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간호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 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3개 도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자가보고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객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 자아존중감 및 동아리 활동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 간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였으며, 29.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68.858,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자아존중감

과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들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생활기술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과정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리더십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을 제안한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4 Tongmyong University Research Fund(2014A025).

REFERENCES

- [1] E. J. Sung, & K. A. Kim, "The influenc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degre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der graduat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9, pp.61-82, 2010.
- [2] K. M. Yune, & J. S. Kim, "Psychological features of college students' leadership : Focused on gender, grade, and thinking style. Th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y", Vol. 15, No. 7, pp.319-345, 2008.
- [3] H. K. Lee,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3, pp.278-284, 2009.
- [4] H. S. Park, &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17, No. 9, pp.61-82, 2010.
- [5] C. W. Choi,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

- [6] H. H. Park, "The effect of leadership development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8, No. 2, pp.1-20, 2011.
- [7] N. Lee, "The effect of the leadership group-activity on college students' leadership and self-estee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2, pp.387-399, 2004.
- [8] C. W. Choi, J. J. Kim, & B. K. Song, "The effects of youth circle activities participation on the leadership life skill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2, No. 2, pp.57-76, 2005.
- [9] H. S. Yoon, "The influences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s and self-efficacy on leadership life skills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2010.
- [10] S. J. Jang,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eadership life skills of the youth-Focusing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unche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han University, 2014.
- [11] E. K.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organization activities experience an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 In the focusing of the youth membership activities in YWC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04.
- [12] J. H. Park,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 activity on leadership life-skil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2012.
- [13] Y. K.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Focused on the scout activ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2.
- [14] T. J. Dormody, & B. S. Seevers,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35, No. 2, pp.65-71, 1994.
- [15] J. C. Morris,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USA. 1996.
- [16] B. S. Seevers, & T. J. Dormody,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Extension", Vol. 33, No. 4, 1995.
- [17] B. S. Seevers, T. J. Dormody, & D. L. Clason,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Vol. 36, No. 2, pp.28-35, 1995.
- [18] G. J. Wingenbach,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Ames, USA. 1995.
- [19]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1979.
- [20] M. S. Jo,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on self-esteem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y Guidance", Vol. 4, Soonchunhyang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1997.
- [21] M. H. Nam, &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3, pp.329-339, 2013.
- [22]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60-68, 2009.
- [23] C. W. Choi, "Influencing factors of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The Journal of Sookmyung Global Leadership", Vol. 4, No. 2, pp.21-53, 2006.
- [24] Y. J. Chung, & G. S. Kim, "The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spective-taking through the self leader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1, pp.291-309, 2009.
- [25] H. S. Choi, S. G. Kim, & J. Ha,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sharing on the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4, pp.1177-1188, 2013.

이 미 련(Lee, Mi Ryon)



- 200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가야대학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에니어그램
- E-Mail : mrlee1365@naver.com